

도내 화장품 수출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북자치도·도 경제통상진흥원·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제2차 수출기업 교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난 22일, 전주 왕의지빌딩 사임당홀에서 수출기업간의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2차 수출기업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에 진행했던 화장품 기업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교류회는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판매업의 동종 업종간 교류회를 통한 도내 화장품 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장으로 운영되었다.

교류회에는 도내 화장품 수출기업 25개사 50여명이 참석해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를 도모했으며,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 및 판매·유통 기업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는 온다움 이노베이션 김주연 대표의 ‘주요국 화장품 인허가 대응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난 22일, 전주 왕의지빌딩 사임당홀에서 수출기업간의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2차 수출기업 교류회’를 개최했다.

략’ 설명회로 시작되어, 참가 기업들의 해외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절차와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도내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인 피에스비바이오(주), 휴먼피코아코스텍(주), (주)코바이오, (주)

하이솔이 기업 소개 시간을 통해 생산 설비 라인과 제품을 공유하며 화장품 판매기업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며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이

은주 과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도내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동종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전북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전북의 화장품 제조기업과 판매·유통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은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과 해외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에 관심있는 도내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MG캐피탈이 호남권 첫 거점으로 전주에 센터를 개소했다.

MG캐피탈 호남센터, 전주에 개소

호남권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시작

MG캐피탈이 호남권 첫 거점으로 전주에 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호남센터는 광주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았으나, 친환경 전기차의 중심지인 전북의 시장성에 주목하여 전주를 첫 개소지로 선택했다.

또한, 광주는 이미 경쟁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전북은 렌터

카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선택의 배경이 되었다.

MG캐피탈 김병국 대표이사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전체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전주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은 용이한 시장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나노소재 국제표준화 협력 위한 아이디어 공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첨단소재 분야 기술 초격차 확보 위한 워크숍 가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첨단소재 중 하나인 나노소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해 ‘2025년 나노소재(IEC TC113) 국제표준화 워크숍’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가 지난 2007년 설립한 전기전자제품의 나노기술에 관한 기술위원회(IEC TC113)에서 활동중인 컨비너, 프로젝트 리더 등 표준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IEC TC113의 정식 명칭은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을 위한 나노기술’이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5년 나노소재(IEC TC113) 국제표준화 워크숍’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세계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맥신 등 나노소재는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이용해 기존 소재보다 우수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 소재로,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나노소재 기술의 국제표준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 첨단산업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국제표준 추진 상황 및 나노소재 표준로드맵 보고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이 탄소나노섬유, 탄소나노튜브 등의 탄소나노소재, 이차전지 분야 나노소재와 같이 각 소재별 표준화와 제를 소개하고,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적 협력 방안과 신규 표준화 아이디어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해단식 열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5년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로 선발된 25명의 대학생들은 5개월의 활동기간동안 당행 브랜드 이미지 홍보,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이번 5기는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및 ‘잘되길 바라요’ 슬로건 홍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을 찾아갔으며,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최초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를 방문하여 경진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된 ‘전타민’ 팀은 “대학생 서포터즈 5기 활동으로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슬로건을 홍보하면서 전북은행의 지역사회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김호은 전북환경청장, 중학생 대상 환경 골든벨 개최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22일 김제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관내 8개 중학교 대상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한 중학교는 서산중, 기전중, 원광중, 화산중, 남주중, 신태인중, 덕암중, 군산제일중 등 8개 학교이다.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한 행사는 전북환경청에서 실시중인 ‘새만금 에코예류’와 연계하여 사전 교육한 환경문제와 환경상식 500제 중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수상자로는 대상(환경부장관상) 영선중학교 2학년 이민우 학생, 최우수상



(전북지방환경청장상) 영선중학교 3학년 김효상, 복건우 학생 등이 입상했다. 김 청장은 참여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장래에 대해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남원 고랭지 포도 베트남 수출 선적식

전북농협은 지리산농협,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 고랭지 포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적식을 지난 22일에 가졌다.

선적식에는 이성호 남원부시장,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위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산농협은 고랭지 기후의 영향을 받아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캠벨, 샤인머스켓)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대형마트 납품으로 이미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유통·판매망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현지 유통업체인 동양농수산을 통해 수출되는 캠벨 포도 물량은

3.1톤으로 향후 연간 약 10억원의 포도를 수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농업은 국가 운명의 근간으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즉, 농심천심(農心天心)이다.”라며 “전북 포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올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